

미가서의 구조와 메시지: 3개의 주제(미 6:8)와 남은 자 개념을 중심으로*

김래용(협성대)

1. 서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미가서를 2-4개의 구조로 나누는데,¹ 나누는 기준에 큰 차이를 보인다. 미가서를 2개의 구조로 나누는 학자들을 살펴보면, 메이스(James L. Mays)는 미가서의 '들으라'(미 1:2; 6:1)는 명령과 선포 대상을 중심으로 1-5장과 6-7장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열방을 대

* 이 연구는 2024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1 쇼(Charles S. Shaw)는 미가서를 6개(미 1:2-16; 2:1-13; 3:1-4:8; 4:9-5:14; 6:1-7:7; 7:8-20)의 구조로 나누고,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미가서를 2개의 구조(미 1:1; 1:2-7:20)로 나누는데, 후자를 4개의 단락(미 1:2-16; 2:1-5:15; 6:1-16; 7:1-20)으로 세분한다. Charles S. Shaw, *The Speeches of Micah: A Rhetorical-Historical Analysis* (JSOTSup 145;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339-416.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위해 David G. Hagstrom, *The Coherence of the Book of Micah: A Literary Analysis* (Atlanta: Scholars Press, 1988), 13-22; Mignon R. Jacobs, *The Conceptual Coherence of the Book of Mic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60-62; 황건영, 「구조와 주제를 통한 미가서 연구」(서울: 도서출판다사랑, 2005), 85-113 참조.

상으로 선포하고 후자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한다고 보았다.² 제이콥스(Mignon R. Jacobs)는 ‘들으라’(미 1:2; 6:1)는 명령, 문법적이며 구문론적 특징들, 구조적이고 개념적인 요소들의 상호관련성을 기준으로 1-5장과 6-7장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첫 번째 논쟁이며 후자는 두 번째 논쟁이라고 보았다.³ 핵스트롬(David G. Hagstrom)은 미가서를 ‘들으라’(미 1:2; 6:1)는 명령을 기준으로 1-5장과 6-7장으로 나누는데, 전자에 심판(미 1-3장)과 구원(미 4-5장)의 메시지가 배치되었고, 후자에도 심판(미 6:1-7:6)과 구원(미 7:7-20)의 메시지가 배치되었다고 보았다.⁴ 그러면서 그는 이 둘 사이에 구조적 평행, 용어적 일치, 공통의 모티프, 신학적 관련성이 공통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⁵

미가서를 3개의 구조로 나누는 학자들을 살펴보면, 매키팅(Henry McKeating)은 내용을 중심으로 미가서를 1-3장, 4-5장, 6-7장으로 나눈다. 미가 1-3장은 유다와 사마리아의 죄와 관련된 말씀으로 주로 미가 선지자의 작품이라고 보았고, 미가 4-5장은 거의 전체적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후대에 구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미가 6-7장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혼합되었고 또한 말씀을 구성한 시대도 혼합되었다고 보았다.⁶ 알렌(Leslie C. Allen)은 ‘들으라’(미 1:2; 3:1; 6:1)는 명령을 중심으로 미가서를 1-2장, 3-5장, 6-7장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단락이 길게 언급된 심판과 짧은 구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면서 1-2장은 처벌과 약

2 James L. Mays, *Micah* (London: SCM Press, 1976), 3.

3 Mignon R. Jacobs, *위글*, 63-96.

4 David G. Hagstrom, *위글*, 27.

5 *위글*, 115-124.

6 Henry McKeating, *Amos, Hosea, Mic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10-11.

속, 3-5장은 고난을 넘어선 희망, 6-7장은 죄를 넘어선 은혜로운 승리를 언급한다고 보았다.⁷ 월키(Bruce K. Waltke)는 미가서를 1-2장, 3-5장, 6-7장의 3개의 구조로 나누는데, 각각의 단락이 심판의 말씀(미 1:2-2:11; 3:1-12; 6:1-7:7)과 구원의 말씀(미 2:12-13; 4:1-5:15; 7:8-20)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각각의 단락이 ‘들으라’(미 1:2; 3:1; 6:1), 목자 모티프(미 2:12; 4:8; 5:3; 7:14), 남은 자(미 2:12-13; 4:6-7; 5:6-7; 7:18)에 대한 언급을 공통으로 포함한다고 보았다.⁸

이들과는 달리 볼프(Hans W. Wolff)는 미가서의 주요 주제들과 선포 대상들에 따라 미가서를 1-3장, 4-5장, 6장 1절-7장 7절, 7장 8-20절과 같이 4개의 구조로 나눈다.⁹ 미가 1-3장은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직 간략한 추가를 통해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급하며, 반대로 미가 4-5장은 전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데, 종종 열방의 미래에 관한 표현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가 6장 1절-7장 7절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인데, 오직 간접적으로 열방에 대해서 또는 미래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고, 미가 7장 8-20절은 예배 공동체 자체가 말하는 예식에 관한 메시지를 언급한다고 보았다.¹⁰

7 Leslie C. Allen,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257-261.

8 Bruce K. Waltke, *A Commentary on Mic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13-16.

9 Hans Walter Wolff, *Mica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0), 17-27. 볼프 외에 미가서를 4개의 구조로 나누는 학자들은 폰 오렐리(C. von Orelli, 미 1장; 2-3장; 4-5장; 6-7장), 쿠페이(K. H. Cuffey, 미 1-2장; 3:1-4:8; 4:9-5:14; 6-7장), 프로쉬(O. Procksch, 미 1-3장; 4-5장; 6:1-7:7; 7:8-20) 등이 있다. Mignon R. Jacobs, *윇글*, 62 참조.

10 최근에 노갈스키(James D. Nogalski)는 미가서를 4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가 1-3장은 주전 8세기의 관심(주전 722년 사마리아의 멸망, 주전 701년의 산헤립의 침략)을 반영하지만, 포로기의 편집적 흔적을 보인다. 미가 4-5장은 미가서의 가장

이처럼 학자들은 미가서의 메시지, 선포 대상, 문법과 구문론적인 표현을 통해 미가서를 2-4개의 구조로 나누었다. 이런 식의 구조 분석은 예언서 연구에 일반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자들은 미가 6장 8절의 야웨가 강조하는 3가지 핵심 주제(정의를 행함, 인애를 사랑함, 야웨와의 겸손한 동행)를 구조 분석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미가 당시 타락한 백성들에게 야웨가 요구하는 것이 3가지 주제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¹¹ 이 주제가 미가서 전체에 배어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3가지의 주제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선포한 핵심 메시지와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도,¹² 막상 이러한 주제들이 미가서 전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3개의 주제가 미가서 전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 미가서를 ‘들으라’(미 1:2; 3:1; 6:1)는 명령과 ‘심판의 말씀 + 구원의 말씀’이라는 메시지의 구성을 중심으로 미가서를 1-2장, 3-5장, 6-7장의 3개의 구조로 나누고, 각각의 단락이 3개의 주제를 사용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남은 자 개념을 사용하여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마지막 자료로 주전 8세기 예언자의 목소리를 사용해 미래를 구조화한다(예루살렘의 평안, 앗수르의 소멸[미 5:5-6], 바벨론 포로[미 4:9-10]). 미가 6-7장은 2개의 단락(미 6:1-7:7; 7:8-20)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유다에 대한 고소에 관심하고 다양한 정경 전승(광야 모티프[미 6:3-5], 신명기 역사[미 6:16], 아모스[미 6:10-12], 신명기[미 6:2])을 포함하며, 이 자료에 포로기적 배경이 널리 인식된다. 후자는 다양한 연설가들에 의해 선포된 포로기 이후의 구원 연설의 모음집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예배적 성격을 부여한다. James D. Nogalski, *The Book of the Twelve: Micah-Malachi*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11), 511-514.

- 11 미가 6장 8절에 언급된 3개의 주제의 중요성을 위해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A;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113-115 참조.
- 12 G. W. Anderson, "A Study of Micah 6:1-8",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4 (1961), 191-197; Juan I. Alfaro, *Micah: Justice and Loyalt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68; 박준서, 「이스라엘아! 여호와와의 날을 준비하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스바냐, 나훔, 하박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74 참조.

를 구성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미가서의 메시지와 구조가 철저히 ‘정의를 행함’과 ‘인애를 사랑함’과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이라는 3개의 주제와 남은 자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 미가서의 구조와 메시지

1) 미가 1-2장

미가 1-2장은 첫 번째 단락으로 ‘백성들아(עַמִּים) 너희는 모두 들을지어다’(미 1:2)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심판의 대상이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³ 이들은 지도자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로 볼 수 있다. 미가 3-5장(두 번째 단락)이 지도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가 1-2장의 메시지는 심판의 말씀(미 1:2-2:10)과 구원의 말씀(미 2:12-13)으로 명확하게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심판의 메시지에서 3개의 부재가 심판의 이유로 제시되고, 구원의 메시지에서 남은 자 개념이 구원과 회복의 대상을 위해 사용된다. 한마디로 미가 1-2장의 메시지 구성을 위해 3가지의 주제와 남은 자 개념이 소재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의 부재로 인한 심판

미가 2장 1-5절은 정의의 부재로 인한 심판을 다루는데, 정의의 부재가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폭력’의 모습으로 강조된다.¹⁴ 이것을 위

13 스미스(Ralph L. Smith)는 미가 1-2장의 백성들을 ‘부도덕한 상인들’과 연결 짓는다. Ralph L. Smith, *Micah-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4), 60.

14 윗글, 24.

해 ‘심판의 이유 + 심판의 내용’의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먼저 심판의 이유를 살펴보면 정의의 부재가 2단계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1-2절). 1단계는 탐욕의 모습을 묘사한다(1a-bα절). 힘 있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로 묘사된다. ‘그들의 침상’과 ‘날이 밝으면’이라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해 이들이 밤새워 탐욕을 위해 고민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죄를 피하다’와 ‘악을 꾸미다’라는 유사한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이들의 악탈을 위한 탐욕이 철저하게 계획되었음을 강조한다. 2단계는 폭력의 모습을 묘사한다(2절).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의 삶의 뿌리까지 흔들어 파괴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취했다.’ ‘그들은 집들을 빼앗았다.’ ‘그들은 사람과 그의 집을, 그리고 남자와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 밭과 집과 산업은 삶의 터전인데, 힘 있는 자들이 탐하고, 취하고, 빼앗고, 강탈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מִצְדִּיקִים** (미쉬파트/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적인 의미를 지닌 4개의 동사를 반복 사용하여 이 당시 정의의 부재가 심각했음을 강조한다.

심판의 내용은 3-5절에 나타나는데, **לָקַח** (라켄/그러므로)을 사용해 정의의 부재가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심판의 내용이 보복의 형태로 묘사된다.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에게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야웨께서 되갚아 준다는 것이다. 3가지 보복을 볼 수 있다. 첫째는 **חָשַׁבְתָּ** (하샤브/계획하다)를 사용해 보복을 강조한다. ‘보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라’(3a절). 힘 있는 자들이 악탈을 위해 악을 계획했던(1a절) 것처럼, 야웨께서도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עָרַב** (라/악)와 **הַעֲרַב** (라아/재앙)를 사용해 보복을 강조한다.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에게 ‘악’(1a절)을 행했는데, 이제 야웨께서 그들에게 ‘재앙’(3절)을 행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הִלַּךְ** (헤렉/산업)과

הַיָּדָא(사데/밭)를 사용해 보복을 강조한다.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의 산업과 밭을 강탈했듯이 야웨께서 그들의 산업과 밭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실 것이며’(4b절), ‘그가 우리 밭을 패역자에게 나눌 것이다’(4b절).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 보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의의 부재가 단절되어야 하는 악행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폭력 행위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2) 인애의 부재로 인한 심판

미가 2장 8-11절은 인애의 부재로 인한 심판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인애라는 개념이 ‘변함없는 사랑(steadfast love), 선함(goodness), 은혜(grace), 친절(kindness)’과 같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지만,¹⁵ 미가서에서 이것이 ‘인애를 사랑함’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남으로써 볼프가 주장한 것처럼 ‘진심 어린 사랑’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낸다.¹⁶ 당시 힘 있는 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이 부족하였고, 이것이 야웨께서 백성들을 심판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단락도 ‘심판의 이유 + 심판의 내용’의 구조를 통해 당시 백성들의 인애의 부재를 부각한다.

심판의 이유를 살펴보면 인애의 부재가 백성들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진심 어린 사랑의 부재의 모습으로 묘사된다(8-9절). 전쟁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강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3개의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된다. ‘나의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

15 H.-J. Zobel, “הַיָּדָא”,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44-64.

16 Hans Walter Wolff, *윗글*, 181.

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겹옷을 벗겼다’(8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9a절).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9b절). ‘전쟁을 피하여 지나가는 자들’, ‘부녀들’, ‘어린 자녀’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신에 의복과 집과 영광을 약탈하였다. 인애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폭력과 약탈을 행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רָחַם**(헤세드/인애)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열거하여 당시 백성들의 인애의 부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10절은 심판의 내용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도 보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 야웨는 힘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쉼 곳이 아니다. 이곳은 더럽혀지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10절).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이 땅을 잃고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안식처가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전에 그들이 빼앗았던 의복과 집과 영광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야웨의 심판이 보복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3)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부재로 인한 심판

‘너의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הֲצַנְנֶה לְכַת עִם-אֱלֹהֶיךָ)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먼슨(Daniel J. Simundson)은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행위’로 보았다.¹⁸ 이것을 이 단락(미 1-2장)에 적용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미가 1장이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을 다루기 때문이다.

17 장성길, 「미가서 주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서울: 솔로몬, 2009), 63.

18 Daniel J. Simundson,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339.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웨와 동행하지 않고 우상과 동행하여 야웨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웨는 미가 6장 8절에서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미가 1장을 살펴보면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위해 ‘야웨의 현현 + 심판의 이유 + 심판의 내용’이라는 3단계 구조가 사용된다.

1단계는 심판을 위한 야웨의 현현을 다룬다(2-4절). 야웨께서 그의 처소에서 강림하시 땅의 높을 곳을 밟을 때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불 앞의 밀초같이 갈라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현을 통해 야웨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야웨의 주권이 온 세상(이스라엘과 주변 도시)에 미침을 부각한다. 2단계는 심판의 이유를 다룬다(5절). ‘이 모든 것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에서 심판의 이유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언급되는데, 특별히 ‘야곱의 허물과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과 예루살렘’이 제시된다. 이러한 장소는 우상숭배의 근거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사마리아가 바알 신전이 세워진 장소이며, 유다의 산당 또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7절을 통해 보강된다. ‘모든 새긴 우상들은 부서지고, 모든 음행의 값은 불살라지고, 모든 목상을 내가 깨뜨리리라.’ 이러한 우상의 파괴와 근절은 야웨의 심판의 이유가 우상숭배임을 방증한다. 우상숭배가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¹⁹ 이제 3단계는 심판의 내용을 다룬다(6절, 9-16절).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관련된 주변 도시들(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아난, 벵에셀, 마룻, 라기스, 가드모레셋, 악십, 마

19 Ralph L. Smith, *읽글*, 18.

레사, 아둘람)의 심판까지 다룬다.²⁰ 우상숭배로 인한 야웨의 심판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 주변 도시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야웨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유다와 관련된 도시들의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야웨의 주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4) 남은 자의 구원

미가 2장 12-13절은 남은 자의 구원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남은 자’는 앞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핍박과 약탈을 당하여 겨우 목숨을 유지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이 이 단락을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보고, 남은 자를 바벨론 포로와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하지만,²¹ 위의 3개의 부재와 연결하여 남은 자를 본다면 이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때, 남은 자들은 정의와 인애를 행하지 않은 자 및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가 2장 12-13절을 본다면, 이 단락은 야웨께서 남은 자를 억압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위해 목자와 양의 모티프가 사용되는데, 3가지의 보호가 강조된다. 첫째는 야웨 자신이 남은 자를 모은다는 것이다(12aα절). ‘내가 너희 모두

20 림버그(James Limburg)는 이러한 도시가 주전 700년 후반에 있었던 산헤립의 원정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James Limburg, *Hosea-Mica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167. 미가서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해 구자용, “12소예언서의 이방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1집 (2019년 3월), 64-69 참조.

21 Jan A. Wagenaar, “From Edom the Went Up...’: Some Remarks of the Text and Interpretation of Micah II 12-13,” *Vetus Testamentum* Vol. 50 (2000), 531-532 참조.

를 진실로 모을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진실로 모을 것이다’(אֲנִי אֶמְצֵא אֶת־הַנֶּשְׁתָּרֵטִים וְאֶת־הַנֶּשְׁתָּרֵטִים וְאֶת־הַנֶּשְׁתָּרֵטִים וְאֶת־הַנֶּשְׁתָּרֵטִים).’ 1인칭 표현과 ‘모으다’라는 2개의 유사한 동사(אֶמְצֵא) 및 절대 부정사(אֶמְצֵא)를 사용하여 남은 자에 대한 야웨의 구원 의지를 강조한다. 둘째는 야웨께서 남은 자를 안전한 곳에 둔다는 것이다(12aβ-b절).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 떼처럼, 초장의 양 떼처럼 한곳에 둘 것이다.’ ‘보스라의 양 떼’와 ‘초장의 양 떼’라는 표현을 사용해 남은 자에 대한 안전과 풍성함을 약속한다.²² 더 이상 약탈로 인한 빈곤의 상태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셋째는 야웨께서 남은 자를 위한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다(13절). 억압의 한 가운데 있는 남은 자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특별히 ‘야웨가 그들의 선두에서 가시리라’(13b절)는 표현은 야웨께서 억압과 약탈의 구렁텅이에서 남은 자를 주도적으로 끌어내신다는 강조의 표현이다. 남은 자들이 더 이상 폭력과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가 2장 12-13절은 후대에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한 자연스러운 단락으로 볼 수 있다.

2) 미가 3-5장

미가 3-5장은 두 번째 단락으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미 3:1)라는 문구로 시작된다.²³ 앞 단락(미 1-2장)에서 선포의 대상이 ‘백성들’이었지만 여기서는 지도자들로 바뀌고 있다. 이 단락의 메시지도 심판의 말씀(미 3장)과 구원의

22 김희보, 「구약 미가 주해」(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7), 102-103.

23 J. T. Willis, “The Structure of Micah 3-5 and the Function of Micah 5:9-14 in the Book”,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1 (1969), 191-214 참조.

말씀(미 4-5장)으로 명확하게 양분되어 있다.²⁴ 여기에서도 심판의 이유로 3가지의 부제가 제시되고, 구원의 대상으로 남은 자의 개념이 사용된다. 3가지의 주제와 남은 자의 개념이 이 단락을 위한 메시지의 소재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의 부재로 인한 심판

미가 3-5장에서 정의의 부재로 인한 심판은 미가 3장 5-12절에 잘 드러난다. 앞의 단락(미 1-2장)에서 정의의 부재가 탐욕과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 정의의 부재는 ‘힘없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²⁵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5-8절과 9-12절에 심판의 대상을 달리하여 나타나는데, 모두 ‘심판의 이유 + 심판의 내용’의 구조로 구성되었다.

5-8절을 살펴보면 심판의 대상으로 선지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5절은 선지자들과 관련하여 심판의 이유를 다루는데, 야웨는 당시 선지자들을 ‘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로 정의한다. 선지자들이 물질로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로 씹을 것이 있으면 그들이 평화를 외치고’, ‘그가 그들의 입에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에게 전쟁을 준비한다.’ 물질의 여부에 예언의 말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지도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예로 들어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준다. 6-8절은 심판의 내용을 다루는데, לַחֲלוּ(라켄/그리하여)을 사용하여 정의의 부재가 심판의 이유임을 명확히 한다. 여기

24 오민수, “문서 기록으로 남겨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예언자 평가에 대한 사회사적 문헌사적 접근”, 『구약논단』 90집 (2023년 12월), 19 참조.

25 James Limburg, 윗글, 175.

서는 선지자들의 능력 제거와 그들의 수치가 심판의 내용으로 강조되는데, 4개의 표현이 열거된다. 먼저 선지자들의 능력 제거가 2개의 표현으로 묘사된다. ‘밤이 너에게 임하여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6aα절). ‘어둠이 너에게 임하여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6aβ절).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의 최후를 강조하는 것이다. 나머지 2개의 표현은 능력을 잃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수치를 묘사한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할 것이며, 술객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7aα절). 5절에서 이들은 **נְבִיאִים**(나비/선지자)로 불리었는데, 여기에서는 **חֹזֵה**(호제/선견자)와 **סוֹמֵךְ**(카삼/술객)으로 불린다. 명칭의 변화를 통해 이들이 온전히 버려졌음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돈만 밝히는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이다.²⁶

9-12절은 심판의 대상으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다. 9-11절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다. 이들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로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정의를 미워하며,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로 묘사된다(9절). 한마디로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10절은 이들의 폭력적 행위를 지적한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반면에 11절은 이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지적한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앞에서처럼 물질의 여부에 따라 재판과 교훈과 점치는 내용이 달라짐을 강조한다. 물질이 없는 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다. 12절은 이러한 정의의 부재가 심판의 이유임

26 박준서, *윳글*, 64-65. ‘선지자’와 ‘선견자’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David Petersen, *The Role of Israel's Prophets* (JSOTSup 1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1), 9-99 참조.

을 강조하기 위해 לָכֵן בְּגִלְתֶּם (라켄 비그랄켄/그러므로 너희로 인해)이라는 특별한 이유 문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너희로 인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도자들의 부정의 문제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짐을 강조함으로써 미가 당시 정의의 부재가 심각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인애의 부재로 인한 심판

미가 3장 1-4절은 정의의 부재와 관련하여 인육을 먹는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은유에 지도자들의 인애의 부재가 강조된다.²⁷ 당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부족했음을 은유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 단락도 ‘심판의 이유 + 심판의 내용’의 구조를 통해 인애의 부재를 부각한다. 1-3절은 심판의 이유를 다루는데, 특별히 정의와 관련하여 인애의 부재를 강조한다. 인애가 밀바탕 되지 않고는 정의를 행할 수 없기에 둘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²⁸ 먼저 1-2a절은 당시 지도자들을 정의를 알지 못하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이와 연결하여 2b-3절은 인애의 부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인애의 부재가 정의의 부재를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인애의 부재는 6개의 은유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2b절은 2개의 분사를 사용해 지도자들을 ‘그들(백성들)로부터 가죽을 벗기는 자들’(מַעֲלֵיהֶם)과 ‘그들의 뼈로부터 살을 벗기는 자들’(עַצְמוֹתָם)

27 이러한 행위를 스미스(Gary V. Smith)는 ‘무자비한(unmerciful) 행위’로 묘사하고, 베이커(Kenneth L. Barker)는 ‘무정한(heartless) 행위’로 묘사한다. Gary V. Smith, *Hosea, Amos, Micah* (Grand Rapids: Zondervan, 2001), 489;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읽글*, 76.

28 Hans Walter Wolff, *읽글*, 181.

לְעַלְמֵי שְׂאֵרָם מֵעַל)로 묘사한다. 그리고 3절은 4개의 표현을 사용해 지도자들의 잔인함을 부각한다. ‘그들은 나의 백성의 살을 먹는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벗긴다’, ‘그들은 그들의 뼈들을 꺾는다’, ‘그들은 냄비와 솥 가운데 고기처럼 다진다’. 이러한 구체적인 은유적 표현을 통해 당시 지도자들의 인애의 부재를 부각하는 것이다. 4절은 심판의 내용을 다루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간구에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들이 아웨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에 그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릴 것이다.’ 인애의 부재가 지도력을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은유적 표현을 사용해 인애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것은 당시 인애의 부재의 심각성을 방증하며, 이런 점에서 미가 6장 8절의 ‘인애의 사랑’이 아웨께서 구하는 3개의 주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3)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부재로 인한 심판

앞의 단락(미 1-2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²⁹ 볼프가 주장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의미할 수도 있다.³⁰ 그러나 미가 6장 8절에서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이 ‘정의를 행함’과 ‘인애를 사랑함’과 함께 평행하게 열거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주제로 보아야 한다. 3개의 주제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주제가 첫 번째 단락(미 1-2장)에서 우상의 파괴로 설명되었는데, 미가 5장 10-15절에서도 우상의 파괴로 설명되고 있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손히 건

29 Daniel J. Simundson, *윗글*, 338-339.

30 Hans Walter Wolff, *윗글*, 182.

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우상의 파괴가 심판의 내용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특별히 ‘다시는 네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13b절)라는 표현에서 ‘다시는’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방증한다. 한마디로 우상숭배가 심판의 절대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것은 13-15절에서 야웨를 주어로 하는 1인칭 표현과 ‘네 가운데’라는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난다.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너의 주상을 네 가운데서 파괴할 것이다’(13a절). ‘그래서 네가 다시는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13b절). ‘나는 너의 아세라를 네 가운데서 뽑아버릴 것이다’(14a절). ‘그리고 나는 너의 성읍을 멸할 것이다’(14b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15절). 우상숭배가 우상의 파괴, 성읍의 파괴, 불순종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열거함으로써 우상숭배가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4) 남은 자의 구원

미가 3-5장에서 남은 자에 대한 진술은 3번(미 4:6-7; 5:2-5a, 7-9) 나타난다.³¹ 3번의 남은 자에 대한 진술은 지도자들의 정의와 인애의 부재로 인해 고통 받은 약자들의 구원과 회복의 내용을 다룬다.³²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들의 구원과 회복의 내용이 주전 8세기와 주전 6세기의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웨에리트”, 『구약논단』 57집 (2015년 9월), 10-36 참조.

32 이 외에도 구원에 관한 내용이 미가 4장 1-5절에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차준희, “거짓평화와 참평화: 미가 4장 1-5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0집 (2018년 12월), 156-178; 박경식, “예언서의 사회정치학적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 대화이론, 상호텍스트성, 상호맥락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231-233 참조.

첫 번째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은 미가 4장 6-7절에 언급되는데, 특별히 남은 자의 정체성과 야웨와 남은 자와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남은 자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2가지 모습으로 강조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남은 자가 정의와 공의의 부재로 지도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은 자라는 것이다.³³ 특별히 ‘저는 자’, ‘쫓겨난 자’와 같은 표현은 미가 당시 지도자들에 의해 억압을 받고 약탈을 당한 자들을 암시한다. 한마디로 핍박을 받아 다리를 절게 되었고, 약탈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에서 볼 수 없는 미가서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다른 하나는 남은 자가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처럼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멀리 쫓겨났던 자’와 같은 표현은 남은 자를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와 연결한다. 시대적으로 이들은 주전 701년의 앗수르 침략으로 인해 환난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가 4장 10b절의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남은 자를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포로들과 연결한다. 이런 점에서 미가 4장 6-7절의 남은 자는 지도자들의 핍박과 전쟁의 포로라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야웨는 이러한 남은 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 3개의 동사가 사용된다. ‘내가 모으리라’(אֶסְבְּא), 내가 모으리라(אֶסְבְּאָנִי), ‘내가 강한 민족으로 삼으리라’(אֶמְצְאֵם לְגוֹי עֲצוּם ... שְׂמִיחֵי). 지도자들의 억압과 약탈로 인해 남은 자와 지도자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자들을 야웨께서 모으시고 그들을 남은 자로 삼아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은 베들레헬과 관련하여 미가 5장 2-5a(MT 5:1-4a)절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의 온

33 김창대, 「미가서 주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서울: 그리스, 2012), 225.

전한 회복을 강조한다. 앞에서 남은 자의 정체성 및 그들의 구원을 다루었다면 여기에서는 남은 자를 통치할 지도자의 온전한 회복을 다룬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가 당시 지도자들은 정의와 인애가 부재한 자들이었고, 이것으로 인해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과 약탈을 당하였다. 따라서 미래에는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을 대체하는 이상적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들이 남은 자를 온전히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⁴ 이 단락은 이상적인 지도자로서 특징을 3가지로 강조한다. 첫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상적인 지도자가 다윗과 관련됨을 주장한다(2절). 다윗의 고향을 언급함으로써 지도자를 다윗의 후손과 관련짓는다. 둘째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통치 방식이다. ‘그가 야웨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4절)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상적인 지도자의 통치 방식이 이전의 지도자와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전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미 3:11). 그리고 새긴 우상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의지하였다(미 5:13-14). 그러나 미래의 이상적인 지도자는 철저히 야웨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통치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되리라’(5a절)는 표현을 통해 이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미가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핍박함으로써 불안을 조성하고 평강을 사라지게 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상적인 지도자 아래서 남은 자가 돌아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3절). 이런 점에서 이 단락은 남은 자를 통치할 지도자의 회복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은 미가 5장 7-9절에 나타난다. 앞에

34 윗글, 115-116 참조.

서 지도자의 온전한 회복을 강조하였다면, 여기에서는 남은 자의 온전한 회복을 강조한다. 특별히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됨을 강조한다.³⁵ 남 왕국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 왕국의 회복도 포함한다. 이 단락은 남은 자의 온전한 회복과 관련하여 3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남은 자가 이슬과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아웨게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7aβ-γ절). 이것은 은혜를 주는 역할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과 단비가 가뭄 때에 곡식이 타죽지 않게 하듯이 남은 자가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은 자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7b절)는 것이다. 과거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였다.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겸손히 행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남은 자가 ‘수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8a절). 억압의 대상이었던 남은 자가 이제는 사자와 같은 용맹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억압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신분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며 심지어 심판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9절).³⁶

3) 미가 6-7장

미가 6-7장은 세 번째 단락으로 앞의 2개의 단락을 요약하고 있다.³⁷ 전체적인 내용이 앞에서 강조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정리하

35 메이스(James L. Mays)는 ‘야곱의 남은 자’가 주전 6세기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동일시되며(참조 학 1:12, 14; 숙 8:6, 12), 비극과 희망 둘 다를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보았다. James L. Mays, *읽글*, 122.

36 Terence E. Fretheim, *Reading Hosea-Micah*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13), 213.

37 박철우, 「요나/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224.

는 역할을 한다. 미가 6장 1-8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낸다.³⁸ 첫째로 1a절의 ‘너희는 야웨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은 선포의 대상을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백성들’이 대상이었고, 두 번째 단락에서 ‘지도자들’이 대상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백성들과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선포의 대상을 종합하는 것이다. 둘째로 3절의 ‘나의 백성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표현은 당시 백성들의 불평을 함축한다. 야웨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단락(미 1-2장)에서 ‘재앙이 예루살렘에 미칠 것’을 말하였고(미 1:9), 두 번째 단락(미 3-5장)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산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미 3:12). 이러한 심판 선포에 백성들은 야웨가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들의 불평에 답변을 해야 했고, 그 방식이 바로 변론이었다(2절). 변론이라는 방식을 통해 백성들의 불평에 답변하는 것이다.³⁹ 이런 점에서 이 단락은 정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8절의 ‘야웨가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은 바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 내용이다. 한마디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야웨가 구하는 3가지의 삶을 살지 못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 이유 없이 야웨가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가 6-7장은 앞의 2개의 단락(미가 1-2장; 3-5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단락의 3개의 부제와 관련된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8 Francis I. Andersen & David Noel Freedman, *Mica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504 참조.

39 Jan Joosten, “YHWH’s Farewell to Northern Israel (Micah 6, 1-8)”,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5 (2013), 448-462 참조.

(1) 정의의 부재와 인애의 부재로 인한 심판

미가 6-7장은 앞의 2개의 단락(미 1-2장; 3-5장)과는 달리 정의의 부재와 인애의 부재를 결합하여 심판의 이유로 제시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형식을 띤다. 이것은 미가 6장 9-15절과 7장 1-6절에 잘 드러난다. 미가 6장 9-15절을 살펴보면 ‘심판의 이유 + 심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의의 부재 및 인애의 부재가 연결되어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마디로 앞의 단락(미 1-2장; 3-5장)에서는 이러한 부재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되었다면,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된다. 정의의 부재가 먼저 나타나는데, 2개의 의문사를 통해 묘사된다(10-11절). ‘아직도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10절). ‘내가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다면,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11절). ‘가증한 예바’와 ‘거짓 저울추’를 예로 들어 정의의 부재, 즉 공정하지 못함을 설명한다. 특히 ‘아직도 악인의 집에 있느냐’(עוֹר הַאִשׁ בַּיִת רָשָׁע)라는 표현은 예전에 그러한 부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느냐는 실망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12절은 인애의 부재를 다루는데,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예시보다 일반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철저히 거짓을 말하였고,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하였다.’ 부지들과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폭력과 속임수로 이웃을 대했다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야웨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3b절). 이제 14-15절은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도 보복성의 심판이 강조된다. ‘예바’와 ‘저울추’

40 Hans W. Wolff, *윗글*, 195.

를 속여 곡식의 이익을 본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네가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노력의 허무함을 5번이나 열거하여 ‘에바’와 ‘저울추’를 속이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는 죄악임을 강조한다.

미가 7장 1-6절도 정의와 인애의 부재로 인한 심판을 함께 다룬다. 앞서서처럼 여기에서도 정의와 인애의 부재가 일반적인 개념 정리 형태로 묘사된다. 특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2a절)라는 표현은 이것을 잘 드러낸다. 볼프는 ‘경건한 자’가 ‘인애’와 관련되고, ‘정직한 자’가 ‘정의’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았다.⁴¹ חָסִיד(하시드/경건한 자)를 통해 חֶסֶד(헤세드/인애)의 부재를, אֲשֵׁר(아사르/정직한 자) 통해 מִשְׁפָּט(미쉬파트/정의, 공평함)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 단락도 ‘심판의 이유 + 심판의 내용’의 구조로 구성되었다. 먼저 심판의 이유로 인애의 부재가 백성들과 관련하여 2가지로 소개된다(1-3a절). 하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1절). ‘내가 여름 과일을 거두고 포도를 거둘 때, 먹을 포도송이와 내 영혼이 바라는 첫 열매가 없도다.’ 이 표현은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기지 않아 그들이 전혀 곡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⁴²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의 부재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 사이의 폭력에 관한 것이다(2b-3a절). ‘그들 모두는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모든 사람이 그의 형제를 그물로 사냥하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잔인한 방식(매복, 사냥)과 모든 백성이 동참

41 윗글, 205.

42 윗글, 204; 김창대, 윗글, 171.

했음(모두, 모든 사람, 두 손)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인애의 부재가 심각했음을 부각한다. 이어서 정의의 부재가 지도자들과 관련하여 소개된다(3b-4a절).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3b절). '뇌물'과 '욕심'이라는 단어를 통해 권력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약탈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도 앞의 단락(미 1-2장; 3-5장)과는 달리 일반적인 표현을 통해 정의의 부재를 정리한다. 4a절은 '가시'와 '찔레 울타리'라는 단어를 통해 당시 지도자들의 행위가 백성들에게 심각한 고통이었음을 묘사한다.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는데(4b-6절), 야웨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강조하면서(4b절) 2가지의 구체적 심판의 내용을 언급한다. 하나는 정의와 관련된 심판이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신뢰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켜라'(5절). 백성들이 저울추를 속이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속임으로 인해 백성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애와 관련된 심판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그녀의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그녀의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사람이로다'(6절).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온갖 폭력을 행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가족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단락은 인애와 정의의 부재를 연결하여 심판의 이유로 제시하고, 마찬가지로 인애와 정의를 연결하여 심판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미가 6-7장은 인애와 정의의 부재로 인한 심판을 정리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부재로 인한 심판

미가 7장 7-10절은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www.kci.go.kr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를 제공한다. 미가 선지자의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을 통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동시에 미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⁴³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행의 주제에 대해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이 단락은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모습 + 심판의 내용’의 구조로 구성된다.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모습을 살펴보면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열정의 모습으로 묘사된다(7절). ‘내가 야웨를 우러러보고’,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노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상을 우러러보고, 우상을 기다리고, 우상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미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⁴⁴ 다른 하나는 고백의 모습으로 묘사된다(8-9절). 미가는 백성들에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야웨와 겸손히 행해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자들에 대한 미가의 반박이다. 한마디로 쓸모가 있다는 것이다. 미가는 그 이유를 4가지로 반박한다. ‘내가 엎드러졌을지라도 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야웨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가 나의 변론을 베풀어 나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함으로 나는 그의 의를 볼 것이다.’ 이처럼 미가는 확신에 찬 주장을 하였다. 하나님과 겸손히 행한 자신에게 그가 베푸신 은혜를 열거함으로써 대적들의 주장에 반박한 것

43 김창대, 윗글, 185 참조.

44 박철우, 윗글, 245.

이다. 이제 10절은 대적들의 정체성 및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언급한다.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이들은 '너의 하나님 야웨가 어디에 있느냐'라며 야웨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로 묘사된다. 야웨와 겸손히 동행하기는커녕 야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던 것이다. 전혀 야웨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야웨를 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야웨도 이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이처럼 이 단락은 하나님과 겸손히 행한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야웨의 정체성을 부인한 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세 번째 주제를 강조하였다.

(3) 남은 자의 구원

앞에서 정의와 인애의 부재로 인한 심판,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부재로 인한 심판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다루었는데, 이제 남은 자 개념을 통한 구원의 약속도 정리하는 형식을 취한다. 앞의 단락들과는 달리 구원과 회복의 내용이 보강되고 또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종합 정리되고 있다. 이것은 미가 7장 11-13절과 18-20절에 잘 드러난다.

11-13절은 남은 자 개념을 통해 실질적인 귀환이 있을 것을 강조한다. 앞의 단락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회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보강되는 것이다. 앞의 단락들(미 1-2장; 3-5장)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 귀환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귀환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귀환자들의 구체적인 출발 장소와 그들이 머물 성벽의 재건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실질적인 귀환과 회복이 있을 것을 강조한다.⁴⁵ 특별히 앗수르와 애

45 Ehud Ben Zvi, *Micah* (FOTL 21B;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굽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의 귀환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앗수르와 바벨론 당시 포로가 되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의 귀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가 당시 주전 722년과 701년에 앗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미가 4장 10절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바벨론 포로 및 애굽으로의 피신을 암시한다. 여기에서는 귀환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귀환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18-20절은 남은 자 개념을 통해 야웨와 백성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보강하는데, 특별히 미가 6장 8절에서 강조된 3개의 주제를 사용하여 이것을 종합한다.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부재했던 정의와 인애와 겸손한 동행을 야웨께서 백성들에게 손수 실천하신다는 것이다. 첫째로 인애의 실천을 강조한다(18절).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는 자기의 기업의 남은 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그의 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가 인애(רַחֻם)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 유 접속사 키(כִּי/왜냐하면)를 사용해 야웨께서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었음을 강조한다. 그의 인애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남은 자가 용서함을 받고 귀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인애가 부족하여 약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였지만, 야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의 백성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암시인 것이다. 둘째로 정의(צְדָקָה)의 실천을 강조한다(19절). ‘그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모든 그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인애가 정의로 연결되고 있다. 남은 모든 자들의 죄악을 다 사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억압했던 힘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의 죄

Company, 2000), 176.

약까지 차별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과거 힘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였지만 야웨는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 ‘모든 그들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한다. 백성들에 대한 인애가 공평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로 백성들과의 동행을 강조한다(20절). 야웨께서 과거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미래에도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인 야곱과 아브라함이 인용된다. ‘야곱에게 진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20a절). ‘진실’과 ‘인애’를 사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한다.⁴⁶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다. 과거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지 않았지만, 야웨께서는 이들에게 진실과 인애를 베풀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단락은 3개의 주제를 종합하는 야웨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미가 6장 8절에 언급된 ‘정의를 행함’, ‘인애를 사랑함’, ‘하나님과 겸손한 동행’이라는 3개의 주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소재와 내용이 되고 있으며, ‘남은 자’ 개념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소재와 내용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미가서 전체의 메시지가 이러한 3개의 주제와 남은 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것은 미가

46 Ralph L. Smith, *윗글*, 59.

서의 구조와 메시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가서는 ‘들으라’(미 1:2; 3:1; 6:1)는 명령형 동사를 통해 3개의 구조(미 1-2장; 3-5장; 6-7장)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단락이 3개의 주제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남은 자 개념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구성한다. 첫 번째 단락(미 1-2장)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심판의 메시지에서 정의와 인애의 부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탐욕과 약탈 및 폭력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부재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구원의 메시지에서 남은 자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억압을 당한 자로서 야웨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자로 묘사된다. 두 번째 단락(미 3-5장)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심판의 메시지에서 정의와 인애의 부재는 지도자들의 차별 대우와 은유를 통해 폭력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부재는 앞 단락에서처럼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구원의 메시지에서 남은 자는 지도자들과 앗수르 및 바벨론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야웨의 도움으로 온전한 회복을 입을 자로 묘사된다. 세 번째 단락(미 6-7장)은 앞의 두 개의 단락을 종합 정리하는데, 백성들과 지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심판의 메시지에서 정의와 인애의 부재는 앞의 두 개의 단락과는 달리 구체적인 예시보다는 일반적인 예시를 통해 정리되고,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부재는 미가 선지자의 야웨를 향한 열정과 고백을 통해 지적된다. 구원의 메시지에서 남은 자는 3개의 주제와 연결되어 묘사되는데, 특별히 야웨로부터 정의로운 대우와 인애를 받고, 야웨와 동행할 자로 묘사된다. 이런 점에서 미가서는 3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고, 미가서의 메시지는 3개의 주제와 남은 자 개념을 기초하여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자용, “12소예언서의 이방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1집 (2019년 3월), 54-91.
-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셰에리트”, 「구약논단」 57집 (2015년 9월), 10-36.
- 김창대, 「미가서 주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서울: 그리심, 2012).
- 김희보, 「구약 미가 주해」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7).
- 박경식, “예언서의 사회정치학적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 대화이론, 상호텍스트성, 상호맥락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216-247.
- 박준서, 「이스라엘야! 여호와와 날을 준비하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스바냐, 나훔, 하박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박철우, 「요나/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오민수, “문서 기록으로 남겨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예언자 평가에 대한 사회적 문헌사적 접근”, 「구약논단」 90집 (2023년 12월), 11-40.
- 장성길, 「미가서 주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 (서울: 솔로몬, 2009).
- 차준희, “거짓평화와 참평화: 미가 4장 1-5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0집 (2018년 12월), 156-178.
- 황건영, 「구조와 주제를 통한 미가서 연구」 (서울: 도서출판다사랑, 2005).
- Alfaro, Juan I., *Micah: Justice and Loyalt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 Allen, Leslie C.,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 Andersen, Francis I. & David Noel Freedman, *Mica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Anderson, G. W., “A Study of Micah 6:1-8”,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4 (1961), 191-197.
- Barker Kenneth L. & Waylon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A;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 Ben Zvi, Ehud, *Micah* (FOTL 21B;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0).
- Fretheim, Terence E., *Reading Hosea-Micah*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13).
- Hagstrom, David G., *The Coherence of the Book of Micah: A Literary Analysis*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Jacobs, Mignon R., *The Conceptual Coherence of the Book of Mic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Joosten, Jan, "YHWH's Farewell to Northern Israel (Micah 6, 1-8)",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5 (2013), 448-462.
- Limburg, James, *Hosea-Mica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Mays, James L., *Micah* (London: SCM Press, 1976).
- McKeating, Henry, *Amos, Hosea, Mic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Nogalski, James D., *The Book of the Twelve: Micah-Malachi*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11).
- Petersen, David, *The Role of Israel's Prophets* (JSOTSup 1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1).
- Shaw, Charles S., *The Speeches of Micah: A Rhetorical-Historical Analysis* (JSOTSup 145;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Simundson, Daniel J.,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Smith, Gary V., *Hosea, Amos, Micah*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Smith, Ralph L., *Micah-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4).
-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Vol. 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Wagenaar, Jan A., "'From Edom the Went Up...': Some Remarks of the Text and Interpretation of Micah II 12-13," *Vetus Testamentum* Vol. 50 (2000), 531-539.
- Waltke, Bruce K., *A Commentary on Mic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 Willis, J. T., "The Structure of Micah 3-5 and the Function of Micah 5:9-14 in the Book",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1 (1969), 191-214.
- Wolff, Hans Walter, *Mica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0).
- Zobel, H.-J., "מִיכָה",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44-64.

검색어

미가 6장 8절, 정의를 행함, 인애를 사랑함,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 남은 자

www.kci.go.kr

[ABSTRACT]

Structures and Messages of the Book of Micah: Focusing on Three Themes (Micah 6:8) and the Concept of the Remnant

Rae-Yong Kim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argue that the three themes of Micah 6:8 (doing justice, loving mercy, and a humble walk with God) and the concept of the remnant are key elements in the composition and the message of Micah. For this, I divide the book of Micah into three sections (Micah 1-2; 3-5; 6-7) based on the command to 'listen' (Micah 1:2; 3:1; 6:1) and the 'words of judgment + words of salvation', and then I analyze the structures, contents, and expressions of each section.

The first section (Micah 1-2) is aimed at the people, and the second section (Micah 3-5) is aimed at the leaders. In the messages of judgment of these two sections, the absence of justice and mercy is identified as the greed, plunder,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f the powers-that-be and leaders, and the absence of a humble walk with God is depicted as idolatry. In contrast, the third section (Micah 6-7) summarizes the previous two sections and is aimed at the people and leaders. In the message of judgment, the absence of justice and mercy, unlike the previous two sections, is summarized through general examples rather than specific examples, and the absence of the people's humble walk with God is pointed out through the prophet Micah's passion and confession

www.kci.go.kr

toward YHWH. In the message of salvation, the remnants are described as connected to three themes, especially as those who receive just treatment and love from YHWH and who will walk with YHWH. In this respect, the book of Micah can be divided into three structures, and the messages of the book of Micah can be seen as being composed based on three themes and the concept of remnants. This analysis is a new attempt in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s and messages of the book of Micah in that it utilizes the three themes of Micah 6:8 to expound the structures of the book of Micah, and views these as key elements of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he entire book of Micah.

key words

Micah 6:8, doing justice, loving mercy, humble walk with God, remnant

투고일 : 2024년 04월 03일

심사일 : 2024년 04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05월 07일

www.kci.go.kr